# 홀아버지의 외아들 믿기

## (요3:14~20)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홀아버지의 외아들 믿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홀아버지의 외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결혼관계에 종사하는 기관에서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우자감으로 어떤 상대가 꺼려지느냐라는 그런 설문을 조사했는데, 여자들이 답한 경우에 참 의외에요.
탈모가 첫 번째로 꺼려지는 배우자 대상이라는 거예요, 탈모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너무 바쁜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홀어머니의 외아들이 배우자감으로 꺼려지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 왜 남편감으로 꺼려지는지는 뭐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구구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뭐냐? 바로 홀아버지의 외아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종종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홀아버지의 외아들과 결혼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자! 홀아버지의 외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좀 어떤 의미적인 뉘

앙스의 차이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말할 때는 자칫 우리가 놓쳐버리고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의미를, '홀아버지의 외아들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다시 살려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정말 로마서의 8장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알맹이 같은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적용단계에 들어가면,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독생자라는 건 어떤 독생자이냐?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가 있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없으면 '나'의 내용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공허한 나만 있으니까, '나'라고 해봐야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너'가 있음으로써 구체적으로 나의 내용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의식을 가진 마음 상태인 인격이 인격다워지려면 '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너'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 '나와 너'의 관계의 영원한 모델이다 이겁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나'라는 의식을 갖게 되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로 상대하시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시는 그런 관계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 오셨으면 그 관계가 끝나는 겁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역시 계속해서 그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아버지와 외아들의 그 관계를 갖고 계신 겁니다.
홀아버지와 외아들의 관계를 이 땅에서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게 될 때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달랑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남편감을 만났다고 해서, 그 남편만 달랑 뺏어 올 수가 없는 게, 이 남편과 이 남편의 어머니, 홀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이 남편이 홀어머니의 외아들일 경우에, 아무리 그 남편만 달랑 갖고 오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는데, 이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잠시도 떨어지실 수 없고, 반드시 외아들이 홀어머니라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 듯,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홀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요? 독생자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는 의미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는다'
그게 바로 라틴어의 '크레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고 할 때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내 심장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 이런 말해요 '마음이 딴 데 가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다 마음을 드리는 일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음이 딴 데 가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열심인 게 아니라, 사업장 안에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께 가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쁜 얼굴과 예쁜 옷을 좀 봤으면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리액션이 나오질 않아요, '아! 예쁘다 너 정말 오늘 기가 막히네!' 뭐 이런 리액션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 가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예수님께 가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사건이 내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관심거리와 마음을 끌어당기는 대상들 사이에 끼여 살면서, 마음이 딴 데 가있어요, 알아봤더니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직준비를 합니다.
취직준비 하는 게 애처로워 과일도 깎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취직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영~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직준비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아요.
마음이 어디 가있는가 했더니 예수님께 가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빼어가려고 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는 가운데 특정한 것에 특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문제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사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장님 마음이 딴 데 가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께 가있습니까?

사업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업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리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다급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을 다 거기다 두고 있는, 한참 연애중인 남녀가 뭐라고 수군대고, 주위에서 하지 말라, 뭐 어쩌라 그래도, 마음이 딴 데 가있는 것은, 그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그 남자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온통 다 거기 가 있는 것, 이 마음을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분이 독생자에요, 홀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홀아버지와의 관계를 떼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림으로 예수님과 마음이 붙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하면, 홀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고 있고, 모든 기대가 다 집중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반면에 또, 독생자라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 독생자로서의 모든 특권이 함께 주어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마주보는 관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내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홀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주보고 계셨던 그 관계, 마주보시면서 어떤 고백들을 서로 하시냐 하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를 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요, 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두 분이 마주보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나 스스로가 깨끗해져서, 멸망을 피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마주보고 있는 것,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 관계를 벗어나서 아버지가 마주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보고 계시듯이,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이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째로,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드려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몸이 없다면 이 세상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치 우리 마음이 몸을 통하여 세상을 느끼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마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하실 때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홀아버지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마음을 드릴 때, 외아들과 홀아버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을 마주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상태 이대로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으신 것은, 이 땅에 내려 오셨을 때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속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이, 예를 들어 베드로라든지 다른 제자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았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고 마음에 좋아서 내 마음 안으로 들여놓고, 내 마음을 그것에 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마음이 얼룩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드리게끔 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잔뜩 들여놨습니다.
들여놨다, 내놨다, 들여놨다, 내놨다…
계~속 들여놓고 있고, 이게 다 얼룩입니다, 이게 더러움입니다.

내가 아내나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좋아서 마음에 들여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원래 하나님 한 분만 들어가 계셔야 되는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남편과 아내를 들여놓고, 자식을 들여놓고, 사업을 들여놓고,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들여놓고, 비전을 들여놨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얼룩지고 더러워집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마음에 들여놨다, 아! 이게 뭐 어때서?
근데 그게 바로 더러움이고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왜? 그 나라가 잘 되면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마음이 기쁘다는 이야기는,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과 오빠와 함께 시시덕거리며 좋아 죽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남자친구가 화를 내는 그런 경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돈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왜 아내 때문에 기뻐하고 남편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으로 볼 때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마음을 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려면…
주님을 따른 다는 게 어디로 간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과 외아들로서 그 홀아버지에 대해 맺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까지, 이 몸까지도 심지어는 마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들여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책장에 시뻘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김장 배추김치를 턱 올려놓는다, 김장김치도 깨끗한 거고 책장도 깨끗한 거지만, 둘 다 못쓰게 돼버립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청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의 두 조건이 만족스럽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물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세례예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은, 성령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 마주볼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으니까.
물이라는 것은 더러움에 대한 자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깨끗해지려는 열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깨끗한 '나'를 원해서, 깨끗한 '나'가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주보려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홀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 봐야 된다는 의식 안에서, '아! 그러자니 내가 더럽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없이, 내 더러움에 대한 자각이 없이, 내 더러움을 씻고 싶은 열망이 없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봐야 헛것이라 이겁니다.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보려니까 깨끗해져야 되고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

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건 좋은데 왜 뱀이 장대에 매달려서 올라가는 겁니까?
그건 십자가사건을 말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믿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바다 위를 걷는 독생자도 계셨고, 문등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독생자도 계셨고, 오병이어로써 민생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독생자도 그 모습이 우리한테 눈에 띄었는데, 왜 그 독생자 다 놔두고 구리 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면 불 뱀의 독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인 독생자를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을 자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마주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왜냐하면 주님과 홀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말고 돈 좋아하고, 사업 좋아하고, 남편 좋아하고, 아내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볼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딴 것이 잔뜩 좋아서 들어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님이 나와 너의 원형으로서 마주보고 계시듯이,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마주보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기 위해서 독생자를 믿되,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가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모든 채찍과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 질 것이고, 그리고 이후로도 깨끗해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로도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다 어디 가있나 봤더니 십자가의 예수님께 가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더 이상 내 마음을 뺏어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좋아할만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얼룩짐이 막아지고 더러워짐이 막아지면서 하나님과 마주볼 수 있는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딴 데 가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음이 딴 데 가있으면 돼요.
어디 가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홀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 안에 진입해서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씨보다 훨씬 더 기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홀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외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진입해 들어갈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을 통해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게 해 주시며,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아버지와 외아들과의 관계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영생의 꿀맛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